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중소기업 고용 급증에 연준의 인플레이 진정 어려워져
- The Economist: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노동자 수에도 수요는 여전히 더 높아
- CNBC: 차츰 식어가는 인플레이, 그럼에도 많은 품목이 몇 달 동안 높은 가격 수준 유지

[부동산]

- CNBC: 이자율 9월 이후 최저치...주간 모기지 수요 7% 급증

[항공/교통]

- CNBC: 보잉사, 항공기 수요 증가에도 노동력과 공급 압박으로 분기 손실
- CNN Business: 메이저 철도 회사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자사 직원 관리에는 미흡했다

[글로벌 경제]

- WSJ: 미국은 둔화, 유럽은 회복...세계 경제 침체 피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천연 vs. 인조 흑연, EV 부족 위험 높인다
- TechCrunch: 테슬라, 네바다주 공장에 36억 달러 투자...세미 트럭과 배터리 셀 생산
- Bloomberg 오피니언: Z세대, 상사에게 미움을 사는 것은 결국 좋지 못하다

[미국 경제]

WSJ: Surge in Hiring by Small Business Complicates Fed's Effort to Cool Economy

중소기업 고용 급증에 연준의 인플레이 진정 어려워져

- 소규모 기업들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미국의 모든 일자리 증가를 책임지고 있으며, 열려있는 일자리 5개 중 거의 4개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빅테크에서 80만명을 감원했을 때 250명 이하의 회사에서는 나간 사람보다 3백67만 명을 더 고용한 것.
-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지속되는 한 인플레이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7번의 인상으로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S&P 500지수는 2008년 이후 최악의 연간 손실을 입어 채권이 사상 최악의 해를 보냈었다.

- 중앙은행은 2023년 미국 경제 성장률(GDP)이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평균 2.1%를 기록했었다.

WSJ 기사

The Economist: Retirements and short workweeks explain America's labour shortage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노동자 수에도 수요는 여전히 더 높아

- 임금 상승의 요인인 초과 수요는 은퇴하는 근로자 수 증가와 '조용한 퇴사'로 알려진 젊은 층의 근로 축소, 질병으로 인해 더욱 높아져 전체 취업자의 약 3%를 차지하게 되었고,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GDP 성장 둔화가 이러한 불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The Economist 기사

CNBC: Inflation is cooling, but prices on many items are going to stay high for months

차츰 식어가는 인플레이션, 그럼에도 많은 품목이 몇 달 동안 높은 가격 수준 유지

- 여전히 1년 전보다 훨씬 높은 물가에 인플레이션 둔화는 아직 소비자들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상품 및 화물 가격의 하락에도 공급업체 계약과 일부 회사들의 이익 마진을 책정 때문에 소비자들까지 와닿지 않는 것.
- 소매업체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제조업체들이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그들의 개인 상표 제품들로 맞서고 있다.
- 연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12월에 6.5% 상승했다. A등급 대형 계란의 가격은 2배 이상 올랐고 시리얼과 제과 제품의 가격은 16.1%나 올랐다.

CNBC 기사

[부동산]

CNBC: Weekly mortgage demand jumps 7% as interest rates drop to lowest level since September

이자율 9월 이후 최저치... 주간 모기지 수요 7% 급증

-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계약금리는 6.23%에서 6.2%로 줄고, 계약금 20% 대출의 경우 0.67%(원천수수료 포함)에서 0.69%로 포인트가 올랐다.
-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신청은 전주 대비 15%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 MBA 이코노미스트 Joel Kan은 “주택 구매 활동이 여전히 미지근하지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잠재적 구매자들이 다시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NBC 기사

[항공/교통]

CNBC: Boeing posts quarterly loss as labor and supply strains overshadow increase in jet demand

보잉사, 항공기 수요 증가에도 노동력과 공급 압박으로 분기 손실

- 보잉사는 공급망 이슈로 인해 지난 4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항공 여행의 급격한 회복으로 이익을 얻었으나 공급망이 불안정하여 항공기 생산을 늘리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년 수익이 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5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
- 또한, 상업용 항공기 사업과 관련하여 4분기 납품이 급증하면서 94% 증가한 9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여전히 비정상적인 연구개발 및 기타 비용으로 적자를 냈다.
- 보잉사의 CEO Dave Calhoun은 “아무리 투자 비용이 급증하여도 강력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혁신을 기대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CNBC 기사

CNN Business: Major railroad posts record earnings, spends more on share repurchases than on its employees

메이저 철도 회사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자사 직원 관리에는 미흡했다

- 메이저 철도 회사 중 하나인 Union Pacific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2022년 노사협상에서 노조의 유급 병가일수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 해 동안 회사의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약 12% 증가한 46억 달러였지만, Union Pacific이 주식을 재매입하는 데 쓴 금액은 63억 달러였다.
-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14%의 임금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노조가 원하는 직원들의 유급 병가일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NN Business 기사

[글로벌 경제]

WSJ: U.S. Economy Slows, but Europe's Picks Up, Raising Hopes World Will Avoid Recession

미국은 둔화, 유럽은 회복...세계 경제 침체 피할 수 있을까

-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로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완화되고 중국 경제가 재개방하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미국 경제가 작년 4분기 2.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주택 판매가 감소했으며, 노동 시장이 균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연준의 노력 끝에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 유럽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올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컸으나, 온난한 겨울, 에너지 절약 노력, 새로운 가스 공급처 모색, 정부 재정 지원 등으로 침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중국 경제의 재개장은 경제 반등의 물꼬를 트면서 성장 전망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중국의 억눌린 수요가 석유와 상품의 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고, 세계적 인플레를 압박하게 될 수도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Shift to Mined vs. Man-Made Graphite Raises Shortage Risk for EVs 천연 vs. 인조 흑연, EV 부족 위험 높인다

- 배터리 제조의 핵심 광물이지만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흑연의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EV 및 배터리 제조사들과 미국 정부가 공급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흑연은 인간이 직접 만들거나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인조 흑연은 만드는 과정에서 천연 흑연을 채굴하는 것보다 4배 많은 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EV의 본래 목적을 파괴한다.

- 따라서 천연 흑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Benchmark에 따르면 2030년까지 천연 흑연은 가장 부족한 배터리 재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천연 흑연의 약 80%가 중국에서 채굴되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흑연을 대체할 자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WSJ 기사

TechCrunch: Tesla invests \$3.6B in two new Nevada factories to build Semis and cells

테슬라, 네바다주 공장에 36억 달러 투자...세미 트럭과 배터리 셀 생산

- 테슬라가 36억 달러를 들여 네바다주에 위치한 테슬라 최초의 전기 세미 트럭 공장과 배터리 셀 생산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발표했다.
- 테슬라는 직접적인 착공 및 생산 시작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2019년부터 생산되었어야 할 전기 세미 트럭이 2022년 10월에야 겨우 생산을 시작한 만큼 새 공장에서 만들어진 배터리 셀은 직접 세미 트럭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 한편 지난해 12월 공개된 테슬라의 첫 전기 세미 트럭은 펩시와 계약을 맺고 대량 납품을 앞두고 있다.

TechCrunch 기사

Bloomberg 오피니언: Gen Z, It's Not Good to Have Your Boss Hate You Z세대, 상사에게 미움을 사는 것은 결국 좋지 못하다 By Allison Schrager

- 노동 시장에서 새로운 세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존재해왔다. 하지만 Z세대는 팬데믹과 변화하는 노동 시장을 겪으며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례 없이 낮은 실업률과 높은 노동 수요 속에서 취업을 시작한 Z세대가 면접을 망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최소한의 일을 하며, 심지어 “잠수 퇴사”를 하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다.
- 하지만 노동시장이 점차 식어가면서 모든 근로자들은 다시 사무실에 출근해서, 예의 있게 일하며,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실에 거의 없어 누구인지 모르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을 해고하기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대를 막론하고 개성 있고, 상냥하며, 사무실에 기여하는 동료로서 명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